

투데이 칼럼

### 나만의 언어로 완성하는 생의 문장

**삶**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삶은 그저 '살아 있기에 살아'가'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거창한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삶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지나는 연속적인 경험에 가깝다. 사실 인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해봐야 결국 죽음뿐이다. 이는 비관론이 아니라, 생을 얻은 존재라면 누구나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존재론적 사실을 말할 뿐이다.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가혹히 단련할 필요성을 말한다. 여기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돈을 모으려 애를 써고, 점심은 물론 배를 채우며, 저녁은 라면 한 그릇으로 연명했다. 제 밥 풀볼 겨를 없이 악착같이 일만 한 끝에 마침내 50억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다. 이제는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으며 고급 아파트와 자동차를 사고 여행도 계획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출발을 앞둔 어느 날, 그는 암 진단을 받았다. 고통스러운 수술과 회복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으나 병은 끝내 재발했고, 그는 결국 생을 마감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부(富)는 그에게 끝내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했다.



신 영 규  
전북수질과비영양학회 회장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지금의 삶은 과연 그 질문에 답하고 있는가.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과 관계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돌보고, 감정을 보듬으며, 타인과 연결되고, 작지만 의미 있는 성장을 일구어가는 과정 속에서 삶은 비로소 빛을 발한다. 만약 그가 자신의 몸과 삶을 조금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삶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는 그저 태어 났기에 살아가며,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다. 이유를 찾아 헤매는 강박이 오히려 삶을 공허의 늪으로 밀어 넣기도 한다. 결국 삶은 정해진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잘 산다는 것의 본질 또한 여기에 있다. 수많은 철학적 담론이 교차하는 지점은 결국 자기 결정권이다. 스스로 설계하고, 온전히 책임지는 삶, 그 주체성이야말로 우리를 살아있게 한다.

많은 사람이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려 한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 남들이 말하는 좋은 삶을 좇는다. 그러나 그런 삶이 반드시 나의 삶인 것은 아니다. 타인의 기준으로 설계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삶은 자신의 의지에서 출발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스스로 묻고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선택이 비록 남들에게 평범하거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스스로 결정한 삶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

있다. 사람마다 삶의 모습은 제각각 다르다. 어떤 이는 평생 배움에 정진하고, 어떤 이는 예술에 혼을 쏟으며, 어떤 이는 돈을 버는 데 전념하고, 또 어떤 이는 신앙과 수행에 삶을 바친다. 그 어떤 삶도 객관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자기 자신의 선택'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만 세상에는 방향을 잃고 방황하거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현실을 외면하는 삶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삶의 가치는 단순한 자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에는 깊은 성찰이 깃들어야 하며, 모든 선택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이 무게를 더해야 한다.

결국 삶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기준은 분명하다. 훗날 스스로 되돌아보며 "나는 나만의 방식대로 충분히 살았노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충고하고 아름다운 것이

다. 삶은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질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각자의 방식으로 그 해답을 써 내려가야 한다. 남의 삶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의 언어로 문장을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삶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다.

독자재언

### 고유가 특탄 노쇼 사기, 자영업자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운송비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유소를 비롯한 유통 관련 업종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 속에서 우려되는 범죄 유형이 바로 '노쇼(No-Show) 사기'이다. 노쇼 사기란 허위 주문이나 예약을 통해 물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게 한 뒤, 나타나지 않거나 결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음식점 예약을 넘어, 대량 유통 주문이나

거리를 병자한 기망 행위로 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법인 명의 대량 구매", 긴급 납품 요청, "후불 결제 유도" 소방기관을 사칭한 "소화기 구매" 등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범들은 실제 존재하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공공기관을 가장해 신뢰를 얻은 뒤, 선결제 없이 물품을 요구하거나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노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량 주문 또는 비정상적인 거래 요청 시 반드시 선결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특히 신규 거래처일 경우 계좌이체 확인 또는 계약서 작성 없이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위험하다.

둘째, 사업자 정보 및 연락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국제정 사업자등록조회, 공식 전화번호 확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실체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공공기관·대기업 사칭에 주의해야 한다. 기관명을 언급하며 신뢰를 유도하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의심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

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이 빠를수록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유사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노쇼 사기는 단순한 예약 불이행을 넘어 명백한 '사기 범죄'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자영업자를 노리는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업종의 경각심과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시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사설

#### 감형에 울부짖은 아리셀 유족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1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맞고 1심에서 인정된 여러 건의 안전주의 의무 위반은 동일하게 판단했지만, 공소사실 중 비상구 설치 의무에 대해선 원심과 정반대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대"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

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재판장을 향해 "우리 가족 살려내라"며 고향 치며 울부짖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오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 베트남에 거주하는 미스트롯3 출신 가수

128만 구독자를 보유한 수산물 유튜브 경 트로트 가수 수빙수(본명 조수빈)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수빙수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28만 유튜브가 동남아에 정착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현재 자신이 베트남 다낭에서 거주한다고 말했다.

수빙수는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해외살이를 시작했다.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사는 게 목표였다. 낯선 환경에 나를 내던져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한 물가 때문이다. 또 경기도 다낭시라 불릴 정도로 한국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한국어가 되지는 베트남 분들도 많아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건강 문제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수빙수는 "최근에 몸이 좋지 않았다. 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살이 65kg까지 췌다. 그런데 여행 중 유일하게 살이 쪼이지 않았던 나라가 베트남이었다. 따뜻한 기후가 잘 맞았다. 활동성도 좋다고 뇌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혼자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해외에서 혼자 생활한 경험이 많다. 어릴 때부터 해외에서 일하며 사는 것이 편이었다.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빙수는 2019년부터 수산물 요리로 주로 다루며 12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로 성장했다. 지난 2023년에는 TV조선 '미스트롯3'에 '재작부'로 출연하며 트로트 가수로도 활약했다.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